

큰 빛은 예교회 가정에 배지

2025. 1. 15.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12장 10절

다 같이

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말씀을 따라', '본토와 친척 아버 집을 떠났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그러나 그에게도 실수는 있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실수를 기록한 원어 본문을 통해 그의 실수가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 개인과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내려가는 삶

'내려가다'(ירד , 야라드)는 기본적으로 낮은 지대로 위치를 옮기는 행위를 가리키나 상징적으로는 지위가 '낮아지거나', 도덕성이 '내려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는 단순히 '가다'(הֵלֵךְ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내려가다'(ירד , 야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본향을 떠날 때는 신앙적인 결단으로 행했으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를 기준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는 신앙인을 타락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가정에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머무는 삶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우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거하다'는 히브리어로 '구르'인데 이 말은 원래 '길 옆으로 벗어나다'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또한 '염려하다'(신 32:27), '두려워하다'(민 22:3)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7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로 보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적인 배고픔과 어려움을 두려워하며 인간적인 염려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며 항상 전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현실에 안주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을 현실에 안주하여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으로 살아내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올라가는 삶

이제 아브라함은 실패에서 돌이키는 행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적 사고의 결과였던 애굽에 내려가 머무르는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천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성도들이 인간적인 향락에 몸을 내어 맡기고 거기에서 안주할 때는 실패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과감히 벗어날 때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눔 ----- 다같이

1.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과감히 내려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중보기도 ----- 큰빛은혜교회를 위해 ----- 다같이

1.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3.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4. 이미 준비하신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5.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무리 기도 ----- 다같이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머무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